

자살 권하는 사회:

청소년과 연예인 자살의 의미계열

이동연_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1. 행복과 불행의 양가성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톨스토이, 『안나 카레리나』

톨스토이 장편 소설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은 자살로 비극적 삶을 마감하는 주인공 안나 카레리나를 위한 운명적인 경구이다. 러시아 제정 말기 최고의 세도가였던 카레닌의 아내이자, 사랑스러운 아들 세루자의 어머니인 안나 카레리나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그러나 오빠의 불륜에 따른 이혼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갔던 그녀 앞에 잘 생기고 열정적인 기병 장교 브론스키라는 남자가 등장하면서 모든 운명이 바뀌고 말았다. 남편 여동생 키티의 애인이기도 했던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진 안나는 귀족 사교계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안나의 무의식의 거울은 겉으

로 보기에 행복하지만 실은 권태로웠던 가정사를 반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자하지만 늘 바쁘고 격식을 중시하는 남편, 화려하지만 아기자기한 맛이 없는 저택의 풍경은 아름답고 젊은 그녀가 끝까지 가져가기에는 너무나 지루하다. 브론스키의 등장은 그녀의 내면에 숨어있던 나쁜 리비도의 욕망과 일탈하고 싶은 자유로운 영혼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결국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브론스키와 깊은 사랑에 빠졌던 안나는 현실원칙 대신 쾌락원칙을 선택했지만, 정작 쾌락의 원칙이 지배하는 시공간에 있을 때에는 가정을 버린 죄책감, 특히 아들 세루자를 버린 죄책감에 시달리며 심한 감정의 분열 상태를 겪는다. 그것은 현실원칙과 쾌락원칙, 생명본능과 죽음본능의 경계에서 그 어떤 쪽으로도 갈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안나의 감정의 양가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행복과 불행이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붙어있음을, 가정의 구속과 개인의 자유가 행복과 불행의 양면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술과 아편은 안나의 고통을 해소시켜주는 진통제이지만, 역으로 그 현실이 얼마나 잔혹한가를 일깨워주는 각성제이기도 하다. 안나는 그 경계에 서있는 자신의 존재론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한다. 한때 브론스키에게 키티를 빼앗길 뻔했던 레빈이 결국 키티의 사랑을 얻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크게 기뻐하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가정을 버린 안나의 비극적 결말과 대조를 이룬다. 소설의 첫 문장에서 톨스토이가 언급한 행복한 가정의 조건과 불행한 가정의 원인은 소설의 결말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미해석을 가능케 한다. 적어도 안나의 관점에서 보면 표면적인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도리어 불행한 자살의 원인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다르게 그녀가 바라고자 했던 것, 본디 그녀가 상상하고 있었던 것을 애초에 행복했던 가정이 충족시켜 주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안나의 환경이 적어도 일반 평민들이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녀의 불륜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납

득할 만한 가정 내에서의 요인들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그녀의 삶에서 행복과 불행의 정의가 분명했다면 안나는 아마도 자살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사악한 남편, 지긋지긋한 가난, 전쟁터 같은 가정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안나의 자살은 행복이 불행의 조건이 되고 불행이 행복의 조건이 되면서 야기된 내적 고통의 결과이다.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안나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었다. 가정의 행복과 사랑의 불행, 사랑의 행복과 가정의 불행은 그녀에게는 결국 같은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녀 스스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죽는 것밖에 없었듯이 안나의 삶은 오로지 자살을 통해서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안나의 자살과는 분명 다른 경우이지만, 최근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과 연예인의 잇단 자살 사태는 행복과 불행의 양가성에서 고뇌했던 안나의 정신적 상태와 매우 닮아 있다. 특히 최근 입시를 앞두고 벌어진 청소년들의 몇몇 자살 사례들은 통상 결손가정이나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자살과는 다르다. 그것은 상대적 결핍이 아닌 절대적인 결핍에서 비롯된, 즉 행복과 불행의 양가적 감정의 혼돈에서 비롯된 경우로서, 안나의 자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자기 삶에 대한 존재론적 분열”의 증상을 표상한다. 2013년 3월 경상북도의 모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권모군의 자살이 그런 유형에 해당될 수 있다. 권 군의 아파트 투신자살은 물리적 왕따나 심리적 우울증에 따른 것이 아닌, 전적으로 현재 자기 삶의 행복에 대한 존재론적 고뇌에 따른 것이다. “제 머리가 심장을 잡아먹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라고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학교와 가족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성적 우수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압박감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권 군은 입학할 때 150등 정도의 성적 수준을 2학년에 올라서는 10등 이내 성적으로 끌어올렸는데, 이런 경우는 성적 상승에 대한 성취감과 하락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정신적 압박감을 더 강하게 받고, 그 고통을 내재화하기도 한다. 외형적으로는 권 모군이 자살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성적 향상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이라는 행복할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민과 걱정이 바로 그 성취의 결과와 기대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영화의 제목은 “불행은 성적순이다”라는 현실을 내포한다. 행복할 권리와 불행한 운명의 양가적인 환경은 학교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둘러싸인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받는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역시 행복과 불행의 양가적인 환경에서 가장 많이 고통 받는 자들이다. 연예인은 행복하지만, 행복한 만큼 불행하다. 그들에게 공적 활동은 있지만, 사생활은 없다. 그들에게 팬들은 있지만, 친구가 없다. 그들에게 부와 명예는 있지만, 일상과 감정은 없다. 그들은 행복하지만, 그만큼 불행하다. 연예인의 삶을 다룬 영화 <보디가드>나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연예인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늘 애정이 결핍된 채로 외로움에 시달린다. 연예인으로서 잘 나가서 행복해지면 행복할수록, 불행해질 수 있는 잠재성은 늘 상존하고 있어 행복과 불행의 그래프는 대립적이지 않다. 2005년 톱스타 이은주씨의 자살 이래로 연예인들의 자살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그들이 왜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시적으로 많았지만, 정작 자살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나오지 않았다. 연예인 자살 원인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는 대개 인기하락에 대한 두려움, 무대와 현실의 극심한 간극에서 오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공인이라는 폐쇄적인 생활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상실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행복과 불행의 경계에서 고뇌하는, 혹은 고통 받는 감정의 양가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즉 자살의 원인을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환원한 다든지, 사업실패와 같은 개인적인 환경변화로 추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연예인의 자살을 미디어로부터 알게 된 일반 사람들도 정보 접근의 한계, 혹은 냉소적인 시선의 일상화로 인해 대개 “아무개가 이런저런 이유로 죽었다더라”라는 건조한 메시지의 교환 그 이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양가적 감정의 굴곡과 변이가 심할수록 자살의 위험성이 높고, 그 양가적 감정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당사자가 청소년과 연예인이라는 사실은, 이들의 자살의 맥락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청소년과 연예인의 자살의 맥락은 개인별로 상이한 차이를 갖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행복과 불행의 양가적 감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지배적이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불행해지고, 불행한 것이 차라리 행복한 양가적 상태는 성적, 인기라는 두 주체의 목적의식에 대한 감정의 분열에 따른 것이다. 이들이 자살하는 것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너무 불행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행복과 불행의 경계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청소년과 연예인은 분명 다른 환경에 존재하는 주체들이지만, 두 당사자들의 자살의 맥락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이다. 청소년 자살 원인의 통계적 분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이들이 자살에 이르는 것은 대체로 성적에 대한 강한 압박감과 학교 폭력이나 가정불화와 같은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 연예인 역시 인기하락, 혹은 인기상승에 대한 강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소속 연예기획사의 관계자나 그와 관련된 주변의 인물의 폭력과 협박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성적이 좋은 입시생의 압박감이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연예인의 압박감이나 개인적인 고통의 차원에서는 다르지 않다. 또한 학교폭력과 왕따 현상에 시달리는 청소년들과 매니저 폭행, 성매매 유혹, 개런티 갈취, 그리고 익명의 네티즌들의 댓글 공격에 노출되는 연예인도 거의 비슷한 감정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 글은 물론 청소년과 연예인의 자살의 공통점을 추적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은 아니다. 다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왜 이토록 청소년과 연예인의 자살이 한국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이들의 자살의 배경이 왜 유사한지를 추적하다 보면, 노동자와 노인의 자살 사태와는 다른 관점에서 자살 권하는 한국사회의 감정의 상태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한 목적이다. 아마도 청소년과 연예인들이 자살에 이르는 극단적 상황들은 이른바 정치적, 경제적 자살의 맥락

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결국 그들에게 어떤 삶과 권리가 필요한지를 성찰해 보는 것이 이 글을 쓰는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하다.

2. 사회적 타살로서 청소년 자살

불행한 사회지표

어린이날을 앞두고 한국방정환재단이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한 ‘2013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7,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행복지수가 72.54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OECD 소속 23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교육’과 ‘생활양식’ 영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물질적 행복’과 ‘보건과 안전’ 영역도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유독 행복지수 만큼은 꼴찌를 기록한 것은 현재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처한 양가적, 모순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물질적으로는 행복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불행한 청소년, 교육과 생활양식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그만큼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현재 한국의 청소년들이 대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설문조사에서 초등학교 7명 중에서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대답한 점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그 충동의 비율은 더 커진다.¹⁾ 초·중·고 학생 10명 중 7-8명은 부모님

1) 통계청이 밝힌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1위는 자살이다. 2011년 한 해에만 373명의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는 전체 청소년 사망자의 26.5%나 되는 수치이다.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가입 국가 중 단연 1위이다. 이는 2002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자살인구가 인구 10만 명당 6.0명에 해당되고(203명), 청소년 사망원인에서

과의 갈등 때문에 가출충동을 경험했는데, 대개 부모와의 갈등의 주원인은 성적에 관한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들 10명 중 7명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멘토가 없다고 말했고, 중학생의 72.1%, 고등학생 62.7%도 멘토나 롤 모델이 없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몇 가지 암울한 전망만을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설문조사에 나온 초등학생의 자살충동률은 이른바 청소년 자살의 잠재적 위험군이 미성년자 이하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둘째, 성적에 의한 부모와의 갈등²⁾이 자살 충동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가정 내 돌봄과 학교 수업이 필수·필연적인 청소년들에게는 그 해결책에 있어 절망적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자살 충동을 제어하거나 해소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배려와 관리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가족 내에서의 생활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살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이 실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예컨대 부모의 잦은 싸움과 같은 가족 간의 불화, 공부에 대한 강요와 같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큰 충격을 주는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들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³⁾ 이 세 가지 요인은 청소년 자살의 발생원리, 미래예측, 해결방안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청소년 자살의 상황들이 매우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청소년 자살을 줄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데다, 청소년 자살률은 갈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들을 정신적으로 상담할 멘토도 부족하다는 점은 청소년 자살의 원인 제거와 결과 대처에 모두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해준다.

자살이 3번째인 것과 비교하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2년 5~6월 조사해 발표한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보면 10대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학업 및 진로문제가 36.7%, 가정불화가 23.7%, 학교폭력이 7.6%로 나타났다.

3) 홍영수, 『청소년의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사회적 자원의 보호 효과』, 한국학술정보, 2002, 41-42.

통계로 나오는 청소년들의 자살요인들은 일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계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인 이면과 맥락에 대한 심층 분석은 청소년 자살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적어도 한국에서 청소년 자살은 청소년 내부와 외부의 복합적인 문제들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청소년 자살의 복합적인 요인들은 아래와 같은 불행한 사회 지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소득불균등의 심화/중산층 비중의 감소/실업률의 증가/과도한 근무시간/일자리의 양극화와 성별, 직종별 임금 격차/저임금노동/전세금 증가와 월세율 상승/수도권 인구집중/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증가/항생제 사용률 OECD국가 1위 및 자궁, 유방 절제 수술 OECD 1위/우울증세의 급속한 증가/세계 최하위의 성평등/사회정의, OECD 중 25위.⁴⁾

대치동 잔혹사

이제 청소년 자살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불행한 사회지표와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것의 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간파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자살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타살이다. 10대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은 가정이건, 학교건, 국가건 청소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그 만큼 없다는 뜻이고, 아울러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가기 전에 사전에 제어

4)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0년 0.266에서 2010년 0.315로 높아졌고, 1990년대 상대적 빈곤률은 7.1%였으나, 2010년에는 12.5%로 상승했다. 2011년 OECD보고서 *Society at a Glance*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시간 4분이고, 이중 유급근로 시간은 5시간 48분인데 이는 OECD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 평균은 정규직의 65% 수준에 그치고 남녀 간 임금 격차는 OECD국가 중 가장 크다. 공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액은 OECD 국가 중 11년 째 가장 높은 순으로 나타났고, 사교육비 수준 역시 1위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과 관련된 기사는 1990년대 초반 58건에서 2009년에는 1,512 건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간 불평등 수준은 135개국 중에서 107위를 기록했다(『문화/과학』 편집위원회, 「통계로 본 한국사회 불행 지수」, 『문화/과학』 69호, 2012년 봄 참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타살이란 의미는 청소년들이 자살에 이르는 데 있어 사회적 책임이 크다는 뜻이다. 청소년의 자살은 본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사실상 청소년을 벼랑으로 내몬 탓에 있다. 청소년 자살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지독한 입시경쟁과 그것을 부추기는 사교육시장, 소수자로서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 시선, 위계질서화된 집단이 개인에게 가하는 정서적 폭력이 사회적 타살의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중의 하나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서 최근 일어난 청소년들의 잇단 자살 사태는 입시가 진학 경쟁을 위한 합리적 장치가 아니라 또래집단과 가족 구성원의 삶 자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사회적 타살을 유도하는 폭력적 장치라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 대치동에서 청소년들의 자살 소동은 일상적인 일과 중의 하나가 되었다. 대치동은 부모 4명 중 1명꼴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자동네이다. 2012년 대치동에 거주하면서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들은 477명으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치동은 최고의 서울대 진학률을 자랑하지만, 반대로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3년 4월 1일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청소년의 투신자살, 바로 10일 뒤에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려 했던 학생, 2012년 2월에 발생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투신자살 등 이른바 강남구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발생한 청소년 자살의 원인은 모두 성적 압박감과 학원 스트레스이다. 2013년 4월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김모 학생이 집 건너편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김군이 자살한 이유는 학업 스트레스로 알려졌다.⁵⁾ 대구의 대치동으로 알려진 상류층 전문직 종사자들이 밀집해 있는 대구시 수성구에서 벌어진 청소년의 연쇄 자살의 주원인도 대학입시 준비

5) 『주간조선』, 2013. 4. 22.

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였다.⁶⁾

이른바 대치동 잔혹사는 자녀의 대학입시를 위한 가족들의 절대적 희생에서 비롯된다. 대치동의 가족 구성원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자녀를 둔 대치동 가족 중에서 원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 이곳으로 전세를 얻어 전입한 가족들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흔히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대전족’(대치동에 전세를 얻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몰려 있는 곳이지만 대치동에는 전업주부가 서초구 다음으로 많은데, 이는 어머니들의 주된 역할이 자녀들의 학업을 보조해주는 데 있음을 짐작케 한다. 자녀들의 학업, 학원, 스펙을 쌓는 모든 일들을 관리해주는 전업주부를 일컬어 ‘헬리콥터 맘’이라고 부른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대치동으로 주소를 옮긴 가족들은 높은 전세값과 높은 사교육비로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2012년 7월 기준으로 대치동의 전세값은 평당 1,375만원으로 강북의 웬만한 집값보다도 높은 편이다.⁷⁾ 강남구의 가구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14만원으로 서울시 월평균 사교육비 56만원의 2배에 육박한다.⁸⁾ 말하자면 전적으로 자녀의 교육을 위해 대치동으로 이사를 온 가족들은 ‘하우스푸어’와 ‘에듀푸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가정이 행복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입시 전쟁터가 된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과,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 사이에 큰 간극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대치동 잔혹사는 결국 청소년의 자살로 마감하지만, 행복한 미래와 불행한 현실의 목적이 모두 동일하다는 점에서 청소년 개인과 가족의 구성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다. 대치동 잔혹사는 행복과 불행, 원인과 결과가 동일한 제로섬 게임이고, 청소년의 자살은 제로섬 게임의 비극적인 결과이다.

6)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대구에서 청소년들이 자살한 13건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학업 스트레스와 가정불화 문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중앙일보』, 2012. 10. 15).

7) 『매일경제』, 2012. 7. 30.

8) 『서울경제』, 2013. 1. 17.

육우당 유서

2003년 4월 25일에 당시 19살이었던 윤 모씨가 자살을 했는데, 그가 자살했던 곳은 성소수자 단체의 사무실이었다. 육우당이란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활동했던 윤씨는 학교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친구들에게 커밍아웃했지만, 그에게 다가 온 것은 저주와 조롱밖에는 없었다. 육우당은 학교를 자퇴하고 동성애자 인권단체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했다. 자신의 정체성의 정당함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던 그가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한 것은 기독교단체들의 성명서 때문이었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의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명시한 조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권고한 것에 반발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동성애자를 “소돔과 고모라의 유향불로 심판해야 한다”는 식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실한 천주교신자였던 육우당은 성소수자를 악마로 간주한 기독교단체의 성명서에 충격을 받고 성명서가 발표된 지 20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육우당의 유서를 보면 그의 자살에 기독교단체의 성명서가 결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유서에는 “죽어서 ‘소돔과 고모라’ 운운하는 가식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준다면...물지각한 편견으로 한 사람을, 아니 수많은 성적 소수자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반성경적·반인륜적인지”라고 쓰여 있다.⁹⁾

육우당과 같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정서적으로 극단에 몰리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터전이라 할 수 있는 학교와 종교단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집단적 배제의식을 당연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 등 진보적인 교육감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안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한국의 교육정책은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려는 인권조례 자체를 조직적으로 무력화하려 든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2012년에 청소년 성소수자 221명을 대상

9) 『한겨레신문』, 2013. 4. 23.

으로 별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성적 정체성에 대해 차별이 심하다고 응답한 이들이 54.3%로 절반이 넘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 역시 성적 소수자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을 사탄의 행위로 규정하려 든다.

성소수자인 육우당의 자살은 차이를 차별로 규정하려는 지배적 권력들의 구체적인 사회적 관리장치의 실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것 역시 사회적 타살의 한 유형이다. 청소년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관리는 푸코가 말한 “통치의 자기제한 원리로서의 진실체계의 출현”¹⁰⁾으로 볼 수 있다. 푸코에 의하면 근대 권력체계가 발견한 광기, 질병, 범죄, 성의 문제들은 나쁜 환영이나 이데올로기의 산물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의 총체이다. “이 모든 실천들, 요컨대 광기, 질병, 범죄, 성, 그리고 제가 지금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한 모든 기획에서 관건인 것은 일련의 실천과 진실체계의 연결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각인시키고, 그것을 참과 거짓의 분할에 적당하게 복종시키는 것으로서의 지식과 권력의 장치를 어떻게 형성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45)¹¹⁾라는 푸코의 지적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비실재성의 실재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해준다. 애초부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의 분할로 복종을 정당화하려는 지식과 권력 장치가 그 차별을 실재화한 것이다. 원래 실재한 것은 성소수자의 차이의 정체성 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 다만 학교와 종교라는 사회적 관리의 장치들이 실재하는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차별만을 실재화한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억압적인 사회적 관리 장치들은 이러한 ‘비실재성의 실재화’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푸코의 언급대로 하나의 환영이 아니라 구체적인 담론적, 제도적 실천의 방식으로 청소년을 압박한다. ‘청소년보호법’이야말로 ‘비실재성의 실재화’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적 관리장치 중의 하나이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

10) 미셸 푸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심세광 외 옮김, 난장, 2012, 44.

11) 같은 책, 45.

회의 권고로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유해매체 심의기준에 동성애를 변태 성행위의 일종으로 표현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현재 심의기준에는 술과 담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유해매체의 심의 기준에 들어간다. 청소년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사회적 관리 장치들의 보수적 잣대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정서를 증폭시킨다. 결국 보호받아야 할 성소수자로서의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차별당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법적 장치들이 오히려 차이를 제거하고 차별의 근거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 재생산되는 것, 이것이 육유당의 자살을 사회적 타살로 보게 하는 요인이다.

‘미안’과 ‘따돌림’ 사이

초등학교 5학년으로 올라간 한 여학생은 학급 친구 5명으로부터 집단적인 왕따를 당했다. 학급 친구들은 이 아이가 지나가면 몸으로 밀치기도 하고 지우개 가루를 머리에 뿌리고는 실수였다고 “미안”이라고 말하고는 같은 행동들을 반복했다. 결국 이 아이는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현재 등교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급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한 한 학생은 중학교에 진급해 정상적인 학업생활을 했지만, 초등학교 때 자신을 왕따시킨 학생들이 학교로 찾아와 “왕따 당하다 온 찌따”라는 소문을 내면서 다시 왕따를 당했다. 이 학생도 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¹²⁾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2013년 4월 2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12.0%였고, 이중에서 가중된 학교폭력으로 인해 심각하게 자살을 시도할까 고민한 학생들이 44.7%나 되었다고 한다. 학교 안에서의 왕따와 폭력이 잠재적 자살 시도의 가장 큰 원인인 셈이다. 학교에서 폭력이나 왕따에 시달린 학생들이 가족이나 교사에게 아무런 도움을 청하지

12) 『국민일보』, 2013. 4. 22.

않는 경우가 33.8%나 되어, 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과 집단왕따 현상은 청소년 자살의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이다. 학교폭력과 왕따 사례는 반드시 연관되지는 않지만, 대개 폭력이 전제된 왕따 현상들이 일반적이다. 왕따와 연관된 폭력들은 한 개인에 대한 집단적 배타행위,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행위, 그리고 신체적인 학대뿐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를 병행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왕따는 폭력의 유형 중에서 가장 나쁜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특히 폭력과 연계된 왕따는 물리적 폭력보다 정서적 폭력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 자살의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왕따의 성격이 강한 폭력은 대체로 물리적인 강도가 높은 폭력이기보다는 개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폭력이 많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조사한 청소년 왕따는 ‘상대 안하고 무시하기’, ‘딴 아이와 못 놀게 방해하기’, ‘싫어하는 별명이나 말로 바보취급하기’, ‘말 따라하며 놀리기’, ‘시비걸기, 빈정거리기, 면박이나 핀잔주기’, ‘지나갈 때 발 걸고 분필이나 물건 던지기’, ‘물, 도시락 반찬, 소지품 빼기’, ‘엉뚱한 소문내기’가 주된 유형이다. 이 유형들은 왕따를 당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들이다.

왕따에서 자살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집단으로부터의 따돌림,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반복이 결국 왕따를 당한 학생들이 자살에 이르는 중요한 내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특정한 학생이 왕따를 당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피해를 당한 학생 자체가 안고 있는 행동의 반사회적 요인부터, 부모들의 과잉보호나 엄격한 양육태도 및 철저한 무관심, 입시위주의 경쟁 체계로 인한 집단 스트레스, 고도성장 사회에 따른 물질주의 등이 왕따 현상의 주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만으로는 왕따에서 자살로 이르는 청소년들의 내재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인들은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려 들거나, 아니면 당장 해결이 어려운 장기적인 사회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왕따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접근은 그들

의 실제생활 안에서 벌어지는 관계들의 재구성에 대한 면밀한 관찰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러한 관찰의 인식적 관점을 ‘미안과 따돌림 사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싶다.

‘미안과 따돌림’은 다른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같은 말이다. ‘미안’이라는 말에는 결코 행위자의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 말은 집단이 개인을 더 잔인하게 따돌리기 위한 언어적 조롱의 의미를 갖는다. ‘미안’이란 언어는 ‘따돌림’의 잔인한 방어법인 것이다. 그것은 왕따를 정당화하는 집단의 자기 방어술이면서 동시에 왕따의 행위를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동의를 구하려는 자기 변명술이기도 하다. 왕따를 당한 당사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따돌림을 당하고, 더불어 미안하다는 상대 집단의 자기 방어술로 인해 그 행위의 악행에 대해 용서를 결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왕따를 자행하는 집단들에게 ‘미안과 따돌림’의 실제적 간극은 없지만, 왕따를 당하는 개인들에게 그 간극은 실제적일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너무나 크다. 아마도 왕따로 인한 청소년 자살 역시 사회적 타살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미안과 따돌림 사이의 간극이 마치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개인에게 습관적으로 행동하려 들기 때문이다. 최근에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포스코 그룹 계열사 임원의 비행기 안에서의 추태나, 남양유업 경영진 및 본사 직원과 대리점 점주들의 횡포들은 우리 사회에서 ‘미안’과 ‘따돌림’을 습관적으로 동일시하려는 행위의 가장 나쁜 사례들이다. 청소년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왕따는 이러한 기성사회의 ‘미안과 따돌림’ 폭력의 축소판이며, 그런 점에서 왕따로 인한 청소년의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3. 사회적 질병으로서 연예인 자살

뒤르켐 자살론의 두 가지 관점

자살의 사회학적 의미를 가장 심층적으로 분석한 에밀 뒤르켐은 자살이 갖는

자발적 죽음의 의미를 강조한다. 그는 “자살이란 용어는 희생자 자신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결과로 인한 모든 죽음을 가리킨다.”¹³⁾ “자살은 자신이 원하지 않은 죽음이나 무의식적인 행동에 의한 죽음 등과 분명히 구별된다.”(21)는 지적 역시 자살의 행위가 어떤 정신질병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살자의 자의식적 결단에 바탕을 둔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뒤르켐은 “자살이라는 용어는 자살자 자신이 그 결과를 알고 행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결과로 인한 모든 죽음의 경우를 뜻한다”(21-2)고 다시 한 번 자살의 자의식의 의미를 역설했다.

뒤르켐은 자살을 비사회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으로 구별하는데, 비사회적 원인으로 자살은 보통 정신질환에 따른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정신질환으로서 자살을 옹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살 자체를 정신병의 특이한 형태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살 자체가 별도의 정신적 질환이기보다는 그러한 정신질환에 의해서 나타난 사건에 불과한 것으로 건전한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38) 뒤르켐은 정신질병으로서 자살과 증상으로 자살을 구별하고자 한다. 정신질병으로서 자살은 자살이 정신질병의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성립될 때만 가능한 것인데, 임상적으로 정신질병이 아닌 형태의 자살의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전제는 성립불가능하다. 자살 자체가 정신이상의 특정한 한 형태가 아니라 모든 정신질환의 상황에서 자살의 가능성이 발견된다면, 자살은 그 자체로 “정신이상이 아니라 단지 정신이상의 일시적이지만 자주 일어나는 증상”(45)으로 볼 수 있다. 자살과 정신질환 사이에 연관 관계는 있으나, 그 자체를 정신질환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 뒤르켐의 주장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정신질환은 자살에 대해서 규칙적이고 명백한 관계를 지닌다고 볼 수 없”으며, “정신적인 결함 자체는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없다”(73)고 판단한다.

13) 에밀 뒤르켐, 『자살론』, 황보중우 역, 청이출판사, 2008, 19. 이하 본문에 쪽수를 표시한다.

뒤르켐은 정신질병과 같은 비사회적 요인으로서 자살보다는 사회적 요인으로서 자살의 의미에 주안점을 둔다. “자살의 경향은 사회적 원인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그 자체가 집단적인 현상”(163)이라는 지적에는 “자살의 일반적인 특성은 사회적 원인의 직접적인 결과”(370)에 따른다는 관점이 들어가 있다. 뒤르켐은 사회적 요인으로서 자살의 유형으로 기본적 유형과 혼합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370)

	기본성격	개별적 형태	2차 변화
기본 유형	이기적 자살	무관심	자기만족으로 나타난 우울증 회의적 환멸과 냉정
	이타적 자살	열정과 의지력	평온한 의무감 신비한 열정 평화로운 용기
혼합 유형	아노미성 자살	흥분 분노	평범한 생활에 대한 심한 비난 특정한 개인에 대한 비난(타살-자살)
	이기적-아노미성 자살 아노미성-이타적 자살 이기적-이타적 자살		선동과 무관심, 행동과 공상의 혼합 격앙된 흥분 도덕적 용기를 내포한 우울증

뒤르켐은 자살의 사회적 원인을 규명하고, 사회적 현상으로서 자살의 의미를 파악할 것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살자의 개인적 상황은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자살을 외형적인 상황에서 찾기보다 개인의 내면적인 특성, 즉 생리적 특질에서 찾거나, 특정한 지역의 자연환경에서 찾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 뒤르켐이 강조하는 것은 자살의 심리적, 자연적 환경이 아닌 사회적 환경이다. 사회적 환경은 특정한 사회환경의 요인들이 개인의 자살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자살은 사회적 자살의 의미로 보아야 하며, 통계학적 자살률 이면에 있는 그 자살률의 사회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어느 한 시기에 그 사회의 정신적 상태가

일시적인 자살의 빈도를 결정한다. 따라서 각 사회는 그 국민을 자살로 이끄는 일정한 양의 에너지로 이루어진 집단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자살자의 행동은 얼핏 보기엔 개인적 기질을 나타내지만 실은 그들이 외적으로 표출하는 사회적 조건의 보완이며 연장인 것이다”(378)라는 지적은 자살의 요인과 그 결과 야기되는 현상적인 문제들을 사회적 관점으로 보기를 요청한다.

연예인 자살과 사회질병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연예인들의 자살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할까? 연예인의 자살을 정신질병으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사회적 요인으로 보아야 할까? 연예인들의 자살의 원인 분석이 대부분 우울증이나 신경쇠약과 같은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비록 이들의 자살 자체를 정신질병의 형태로 볼 수는 없다 해도, 정신질병을 자살의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은주, 최진실, 박용하, 최진영 그리고 최근에 자살한 탤런트 김수진 씨 등 자살한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러나 연예인들의 임상적인 정신질환 자체를 자살의 모든 원인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무엇보다도 연예인의 정신질환의 원인을 따져보면 그들의 자살이 우리 사회에 위치한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누릴 수 없는 사생활, 인터넷에서 익명의 네티즌들에게 당하는 비난과 욕설, 폐쇄적인 인간관계 등을 연예인 우울증의 사회적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연예인들은 주로 편차가 심한 감정노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감정과 연기와 무대에서의 감정의 분열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난다.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감정을 조절하는 데 실패할 경우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연예인들의 감정의 양가성은 특수한 상황에 이르면 정신질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고, 그 여부는 연예인 개인의 기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서 결정된다. 연예인의 자살의 맥락은 ‘원인의 원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 것이다. 즉 연예인 자살의 주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울증의 원인을 사회적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예인의 자살은 개인의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비사회적 측면이 많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사회적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예인의 자살은 우울증과 같이 개인적 질병의 요인을 갖고 있되, 그것이 선천적이라기보다는 갈등과 고통, 소외를 동반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감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질병으로 명명할 수 있다.

사회질병으로서 연예인 자살의 의미는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정신질환의 사회적 원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예인의 자살이 우리 사회의 독특한 구조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뜻이다. 연예인이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해보면, 연예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이중적 시선, 특히 여성연예인에 대한 가부장적 사회의 편견, 연예인에 대한 지나친 사회적 관심이 이들의 자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연예인의 자살 자체가 하나의 사회질병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은 없지만, 한국에서 연예인들의 자살 사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우로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할 연예인이 불행함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상은 그만큼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연예인 자살은 어떤 점에서 한 사회의 건강지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연예인의 자살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톱스타 이은주와 최진실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예인 자살은 일반인의 동반 자살을 유도하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를 야기시킨다.

연예인의 자살은 그 어떤 사례보다도 한 사회가 안고 있는 정신적, 정서적 질병의 상태를 대변한다. 연예인 자살은 “대중 우상 시대의 차가운 유혹의 본질”¹⁴⁾이다. 연예인들의 자살에 동원된 자살의 도구와 자살한 장소, 그리고 그들의 남긴 유

14) 최효찬, 『하이퍼리얼쇼크』, 위즈덤하우스, 2011, 360.

유명 연예인 자살 이후 2달간 자살자수 및 자살 증가효과 추정치(단위:명)¹⁵⁾

	이은주 (2005.02)	유니 (2007.01)	정다빈 (2007.02)	안재환 (2008.09)	최진실 (2008.10)
유명연예인 자살 사건 후 2달간 자살자 수(A)	2,258	2,330	2,304	2,876	3,081
자살사건 전년도 동일 기간 자살자 수(B)	2,154	1,822	1,922	1,961	1,807
자살 사건 다음 연도 동일 기간 자살자 수(C)	1,992	1,812	1,971	2,403	2,339
기대치(E=B와 C의 평균)	2,073	1,817	1,981.5	2,182	2,073
자살증가 효과 추정치(A-E)	495	513	322.5	694	1,008

서들은 살아있는 대중들에게 자살의 충동을 자극하고, 모방의 강도를 높여주는 오
브제가 된다. 연예인들의 자살 방법은 몇몇의 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목을 매는
방식을 선택한다.¹⁶⁾ 연예인의 자살 상황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미디어의 사소한

15) 『마이테일리』, 2010. 10. 4.

16) 연예인들의 자살 방법은 대부분 목을 매서 죽는 것인데, 아마도 자신의 자살한 모습을
외부에 드러내길 꺼려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목을 매서 자살한 연예인들의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명(사망일)	도구	장소
이은주 (2002.02.02)	넥타이	작은방 이동식 옷걸이에 연결
유니 (2007.01.21)	목욕가운 허리끈	드레스를 옷걸이에 연결
정다빈 (2007.02.10)	수건	화장실 수건걸이에 연결
최진실 (2008.10.02)	압박붕대	샤워부스 샤워기에 연결
장채원 (2008.10.03)	스타킹	화장실 방범창에 연결
이서현 (2008.12.01)	천	녹음실
장자연 (2009.03.07)	미확인	복층구조의 계단 난간

정보들은 모두 사회적 질병으로서 연예인의 자살을 대중들에게 유포하는 정신적 바이러스 같은 것이다. 자살 직전까지 대개의 연예인들이 겪는 우울증상은 그 자체로 자살의 감정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연예인의 자살은 곧바로 대중들의 우울한 감정 상태를 증가시킨다.¹⁷⁾ 연예인의 자살은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정신적 질병의 상태의 지표이면서 동시에 사회를 우울하게 만드는 기폭제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의 자살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그녀)에 대한 애도의 감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들추어낸 것에 대한 불편함과 그것이 사회질병으로 대중들에게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자살할 권리와 자살당한 운명 사이에서

충격, 허탈, 안타까움.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할 때 흔히 방송과 언론에서 만날 수 있는 말들이다. 연예인들의 자살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메인 기사로 뜨면 많은

최진영 (2010.03.29)	찜질기 전선줄	침실 천정 빔프로젝트 기기에 연결
박용하 (2010.06.30)	캠코더 충전기 전선줄 150cm	침실 침대 가로봉에 연결
채동하 (2011.05.07)	넥타이	작은방 이동식 옷걸이에 연결
남윤정 (2012.08.01)	스카프	드레스를 옷걸이에 연결
우종완 (2012.03.15)	목욕가운 허리끈	복층구조의 2층 펜스에 연결
조성민 (2013.01.06)	가죽벨트(허리띠)	샤워부스 샤워기에 연결

17) 다음의 인용문을 보라. “최근 들어 대중들의 별로 불리는 인기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2007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수 유니 양의 안타까운 죽음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탤런트 정다빈 양이 친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처럼 자살의 유행병은 도미노처럼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2005년 2월 말 어느 비오는 날 오후 매스컴과 신문 지면을 온통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영화배우 이은주 자살 소식은 이런 연예인 도미노 자살의 시발점으로 당시 우리 사회에는 연예인 자살 이외에 동반자살 사건들까지 잇따라 우울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다”(오진탁, 『자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 세종서적, 2008, 75).

사람들은 설마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연예인들의 자살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 대중들은 연예인들의 연기, 노래, 춤을 소비하듯이, 그의 비극적인 죽음마저도 소비하려 든다.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의 자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예인은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처럼 공인으로서 대중들에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연예인이 되레 자살을 선택한 것은 대중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일반 사람들이 그 충격에 휩싸여 모방 자살을 기도할 수 있는 위험성을 높인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역설적인 것은 연예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연예인의 자살 원인 중에는 대중들의 지나친 관심과 그에 따른 사생활의 유예가 낳은 폐쇄적인 인간관계가 있다. 공인이기에 사생활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불특정한 익명자에 의해 사이버테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삶은 외롭고 불안하다. 공인이라는 허구적 일방적 낙인에 대한 사회적 압박감은 연예인들이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우울증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연예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연예인을 공인으로 강요하는 정서적 압박감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논리 사이의 모순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로서의 자살과 자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사이의 모순과도 같다.

연예인들의 정신적, 정서적 공포와 불안감은 일반인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인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사생활은 언제나 항상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현실의 상황과 관계없이 주어진 감정노동에 충실해야 하는 연예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는 것이, 인기스타로 삶을 연장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예인들이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충동적인 경우보다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처지에서 그 고통의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탈출구가 안 보일 때이다.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연예인들에게는 더 나은 결정이 아닐까? 그들에게 죽을 수 있는 선택은 절실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이 지점에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개인에게 상당한 공포와 폭력으로 유지된다면, 자살의 권리와 정당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자살의 정당성에 대해 합리성과 도덕성의 관점으로 설명하려는 예일대학교 셸리 케이건 교수의 설명은 자살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도덕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어떤 사람이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는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이 자살을 선택했다면 그는 과연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 이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존재하겠지만, 케이건은 자살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자살의 ‘합리성’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자살을 정당화할 수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해 개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합리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특정한 상황에서 자살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세상에는 비존재보다 더 나쁜 삶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상황을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능력을 갖고 있다.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로 판단이 흐려지고 불안감이 높아지며,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살을 통한 이득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자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게 올바른 선택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말해 자살은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¹⁸⁾

케이건은 자살이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특정한 조건은 “자살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해 죽는 게 더 낫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

18) 셸리 케이건, 『죽음이란 무엇인가』, 박세연 역, 2012, 엘도라도, 480-81.

하고, 이에 대해 차분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충분한 정보와 조언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 타당한 근거를 갖는다”는 조건이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자살은 다시 한번 (모든 경우에는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경우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¹⁹⁾고 말한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종교계에서는 자살이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개인의 충분한 성찰이 전제된 자살은 도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인 자살할 권리의 철학적 근거를 뒷받침해준다.

자살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도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자살할 권리가 있다. 존재에 대한 인권이 있다면 비존재로 가기 위한 인권의 최후의 순간도 있다. 자살은 존재의 마지막 순간이고 마지막 인권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죽고 난 후에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것도 합리적, 도덕적 정당성을 떠나 자기 인권이 행사되는 마지막 행위의 순간이다. 연예인의 자살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 어떤 사람들의 자살보다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들이 일반적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연예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점이 그들을 공인으로 보는 태도가 강하고, 그로 인해 생겨나게 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연예인의 자살이야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으로서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이해는 불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연예인이야말로 자살할 권리와 자살 당할 운명 사이에서 가장 많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은주, 정다빈, 장자연, 최진실, 최진영의 자살의 서사들은 통상 연예인의 화려한 생활 뒤에 가려진 정신적 고통을 내면화한다. 물론 이들의 고통이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나 오랜 정리해고의 국면을 버티고 서있는

19) 같은 책, 503.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통과 비교하면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예인의 정신적 고통은 서두에 언급한 안나 카레리나와 같은 경계에 선 분열증으로 행복과 불행의 경계에서 자기 존재를 스스로 명시할 수 없을 때 당하게 되는 고통이다. 더욱이 이 고통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무한경쟁체제, 가부장적인 권력관계에 의해 가중된다는 점을 상기해보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돌, 지속적으로 성상납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여성연예인, 한 순간에 사랑과 증오의 극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잔인한 인기 포퓰리즘, 그리고 일상적으로 상존하는 대중들의 언어적, 정서적 위협 등 연예인들이 일상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경험들은 즐거움의 경험보다 더 많을 것이다. 청소년과 연예인의 자살은 인권의 마지막 선택과 결정으로서의 자살의 고유성과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이 당해야 하는 수많은 모순들의 희생자로서의 운명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동시대 삶의 비극적 알레고리이다.